

## 전시



2002년 에르메스상 수상전시 때 선보인 박이소의 설치작품 <당신의 밝은 미래>

### 미안하다 \_요절 작가 박이소 회고전

박이소(1958~2004). 한국 현대미술에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운 이 요절작가의 이름이 올해 내내 머리 속을 맴돌았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 압축성장으로 쌓아올린 한국 사회의 부박한 속내를 '후지다'는 개념으로 단박에 간취한 그의 혈령한 설치작품과 영상, 회화에 청년 작가들은 열광했지요. 비판 풍자를 넘어 한국 미술이 현실에 발언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뚫은 박이소의 회고전이 올해 7~12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지만, 결국 인연은 닿지 않더군요. 작업일기 등 수백점의 미공개 자료들이 선보였지만, 두세차례 고인과 절친했던 기획자들의 재조명 전시가 있었던 터라 더욱 색깔있는 전시를 고대했던 마음이 발길을 머뭇거리게 했던 듯합니다. 9~11월 경북대 박물관의 실크로드 특별전을 취재한 뒤 못다룬 것도 아쉽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건너가 세계적인 실크로드 학자가 된 이구조(1922~2016) 선생의 일대기와 비단길 타고 펼쳐진 고대 유리공예·직물 교류사를 실물을 통해 볼 수 있는 드문 자리였습니다.



유비호 작가

### 응원한다 \_유비호 작가에게 빛이 들길

미디어아티스트 유비호 작가는 세계 각 도시의 난민과 보통 사람들이 거울로 내비친 빛의 조각들을 들고 연말 미술관 구석을 밝혀줬습니다. 11월말~이달 초 서울 연남동 '공간 41'의 신작전 '팽과리 은하수 편지'에서 작가는 내면의 빛과 소리들을 공간에 담아냈습니다. 갈등의 시대 생존과 평화를 바라는 소망은 사람들의 빛조각과 아내를 저승에 앗긴 음악가 오르페우스의 비극을 모티브 삼은 예언자의 목소리 등으로 울려나왔습니다. 온기가 물씬한 아날로그 영상 작업을 지속해온 그의 건투를 바랍니다. 대안 사진장터를 운영하면서 공간의 질감과 물성이 현실과 한몸이 되는 다큐사진을 찍어온 홍진원 작가도 떠오릅니다. 올해 개인전은 소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눈여겨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mailto:nuge@hani.co.kr)